

제6실 | 서예 | 일본의 옛 불경 전시해설

N-10 칭찬정토불섭수경

이 경전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것으로 극락정토의 부처와 보살 그리고 국토의 뛰어난 내용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쿠마라지바(구마라집)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의 다른 번역본입니다. 황마지 9장을 이어붙여 해서체로 필사하였고, 덴포 시대(8세기 무렵) 사경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N-14 불명경

『불명경』이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부처들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외워둘 것을 설파하는 경전입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에는 천 개의 부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하여 1141년에 류케이라는 승려가 스승 린코대사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명복을 빌며 불명회라는 법회를 개최하고 이 경전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실 | 염직 | 수리가 완료된 염직품

염직 코너에서는 지금까지 유리관 사이에 끼운 형태로 보관해오던 염직물의 수리가 끝난 것을 계기로 하여 해당 작품들을 비로소 공개합니다. 제작된 지 1300년 넘게 지나 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염직품을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박물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N-319-177-1 봉황무늬 자수 조각

봉황 등의 형상을 채수(체인 스티치) 방식으로 양면에 자수하여 나타낸 직물의 일부입니다. 두 날개와 연꽃 받침 위의 다리, 포도잎으로 보이는 식물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채수는 고대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기법인데 중국 당시대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소인 전래품과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쇼소인에 전해지는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N-319-177-3 협힐 조각

무늬를 새긴 판 두 장 사이에 천을 끼워서 염색하는 협힐이라는 기법으로 꽃무늬를 표현한 평직비단 조각과 화조무늬 조각입니다. 무늬와 제작 기법으로 보아 이 작품도 쇼소인에 전해오던 염직품으로 추정됩니다.

N-319-177-10 황색과 갈색 바탕 평직비단 번수 조각

평직비단 번에 붙어 있던 번수(번두 또는 번신에 손처럼 달린 천조각)의 일부입니다. 천조각을 한 번 접어 띠 모양으로 만든 다음 끝부분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넣어 칼끝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